

다산포럼



이기영 호서대 명예교수·초록교육연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처럼 좌우로, 동서로 양분돼 정당은 물론 한집안 식구들끼리도 그야말로 이념싸움의 격랑에 휘말려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한민족은 의침에는 3·1운동 등 하나 된 저항의식으로 강하게 대응했으나 백제나 고려, 조선 등 국운이 쇠할 때는 대부분 지배육 싸움으로 인한 내부 분열로 자멸하였다. 지금도 내부 분열로 대한민국이 좌우로 쪼개져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격정되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 유희론에 바탕을 둔 좌우 이념 대립보다 대한민국이 한 몸이라는 우리만의 고유한 영성적 홍익정신을 되살려 대립을 멈춰 세워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고유의 홍익정신을 K-Spirit 한류로 전 세계에 전파해 전쟁과 기후 위기의 인류 문명과 지구 생태계를 구하자.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이 귀화한 왜장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서로 이런 끔찍한 살육을 해야 하나요? 이순신은 '임진왜란은 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이다'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인가.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의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자연스러운 삶으로 반만년 우

우리 고유의 '홍익(弘益)'으로 나라를 구하자

리 백의민족만이 간직해온 '우리 성(性)'이란 집단의 식이다. 남편조차도 우리 남편이라고 부를 정도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나라는 국가의 이름도 한국(韓國)인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조화된 아름다운 삶, 즉 한 생명체를 만들려면 검소함을 모토로 자연의 만물들처럼 서로 존중해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

최근 강단사학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환단고기'를 철학적으로 해석해 우리의 전통 자연 철학의 본질적 가치를 파악한 유학자 이기동 교수는 홍익정신을 '하늘마음'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하늘마음이란 천심(天心)·천명(天命)이다. 이는 주역에 바탕을 둔 음양오행의 태극기 철학으로 전 인류가 한 형제임을 뜻한다.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도 이육사의 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도 마찬가지로 '하늘마음'을 품은 시이다. '하느님'은 우리 고유의 단어로 '한 울타리를 지켜주시는 하늘님'을 어원으로 하며 의인화된 의(義)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고유의 천지인 사상도, 불교의 화엄사상도 기독교의 포도나무의 비유도 모두 다름 아닌 아리랑 사상, 즉 우리 한 몸 공동체이니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해 서로 이익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로 더 커지려고 다른 장기를 침범하면 암세포가 돼 온몸에 퍼져 다 함께 죽게 마련인 것이다.

지구는 한도 끝도 없이 미시적 원자로부터 거시적은 하계 너머까지 러시아 인형처럼 플렉탈 구조로 중첩된 우주 중 하나의 소유주로 한 몸 생명체이다. 따라서 지구의 모든 동식물, 미생물들까지, 공기, 물, 흙까지 어

느 하나라도 오염되거나 병들면 지구가 순식간에 절멸의 위기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얼마 전 우리 1억분의 1cm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주때문에 전 인류가 큰 고통을 겪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멜트다운 핵반응이 지속되고 있어 세상이 수십 수백 년 후까지도 방출될 수 있어 아이들 미래가 걱정된다.

그러나 서구 유래의 현대 인류문명은 탐욕적 물질 독점을 위한 산업화의 확장으로 유기물의 산화체인 이산화탄소가 급증해 자연을 순식간에 파괴한 결과 기후위기가 온 것이다. 반면, 기(氣)를 중시하는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사는 우리 배달민족은 영성적 검소한 삶으로 율려(律呂)를 우주의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믿는다. 율려란 좁은 뜻으론 음악이란 의미로 쓰이지만 넓은 뜻으론 양자 파동이다. 우리 물질만을 중시하는 서양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를 담은 파동, 즉 기(氣)의 흐름을 중시한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철학은 최근 양자과학자들에 의해 증명돼 하늘마음을 담은 율려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계간 한국사학에서 신인상을 받고, 홍익정신을 담은 첫 시집인 '꽃이 피다니'를 출판했다. 꽃이 다시 피다니/ 이 얼마나 기쁘기/ 산다는 것은 꽃피우는 것/ 저만의 색깔과 저만의 향기와 저만의 몸짓으로/ 제 자리에서 자신만의 꽃을 피우자. (유튜브에서 노래로 들을 수 있음. 꽃이 피다니. 이기영) 누구나 다 저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자. 단 서로 다른 이들을 침범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해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다 함께 큰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건강한 하나의 소유주 지구, 즉 홍익세상을 만들 수 있다.

청춘 특특



김혜연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2년

최근에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접했다. 온라인 예매를 할 줄 몰라 현장 예매하러 갔다가 매표이라는 말에 슬퍼하는 LG트윈스 할아버지 팬의 사연이었다. 이번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는 온라인에서 사전 예매를 받았는데, 취소된 표가 있을 경우 현장 구매도 가능했지만 취소된 표가 없어 입장권을 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나는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많은 연결성과 편의를 누리면서 세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혁신과 편리함의 그림자 아래, 디지털 소외(Digital Exclusion)라는 문제가 숨어있다.

디지털 소외란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 이해 및 활용 능력이 부족한 개인 또는 그룹들이 디지

디지털 세계의 어두운 그림자

털 기술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디지털에 소외된 개인들은 정보, 교육, 일자리, 건강관리, 정부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고도 불린다.

디지털 소외 문제는 지난 수 년 동안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고 코로나19 이후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근무 및 교육의 온라인 이전이 강조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개인 및 그룹들의 여건은 더욱 취약해졌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은 디지털 학습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에 소외된 학생들은 인터넷 접속이나 필요한 기기에 대해 액세스를 얻기 어려워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는 건강 관리 분야에서도 디지털화를 가속화시켰다. 원격 의료 상담 및 온라인 약국 서비스가 급증했지만, 디지털에 소외된 개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사와 기업이 원격 근무 및 온라인 거래로 전환했지만 디지털에 소외된 근로자 및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쇼핑 및 금융거래와 같은 기본적인 디지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문제임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디지털 소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기관,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는 디지털 소외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동네 식당에서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로봇이 서빙을 하는 세상이다.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나와 같은 20대 청년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기와 씨름을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한다. 디지털 소외 계층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심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놀랄 만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디지털 소외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열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발전은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변화를 막을 수 없지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개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주요 임무라는 생각이 든다. 공정한 평등한 디지털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

기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추위지는 연말이 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곤 한다. 폐지를 한가득 짊어지고 지나가는 노인을 봤을 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어린이들의 뉴스를 접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기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 생각한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다.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방법으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정기적인 기부 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적십자회비 납부를 통해서 돕는 방법이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118년 전 고종 황제께서 '널리 구제하고 고루 사랑하라'는 칙령 47호에 의거 1905년에 창

립됐다.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적십자 회비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아파트 붕괴 사고 작업자 지원,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 활동,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구호 활동, 우크라이나 피란민 구호 활동, 튀르키예 지진 구호 활동 등 한 해 동안 다양한 구호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모든 활동의 밑바탕에는 광주전남 시민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내주시는 적십자회비가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재난이 발생할 때 이재민 수용·보호, 급식, 응급처치, 심리지원 등 종합적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우리 지역 내 소외계층 822가구와 결연을 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며, 갑작스러운 사유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풍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상시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 5·18 민주묘지 봉사활동, 급식 및 세탁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적십자회비가 왜 모금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기타 모금 단체들과는 달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라는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자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적십자회비 모금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변하지 않는 희망, 적십자회비'라는 슬로건으로 올해는 12월 1일부터 희망 나눔 모금 운동을 시작한다.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다.

추운 날씨 속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이 필요해지는 12월이 코앞에 다가왔다. 2024년은 불안정한 세계 정세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타인을 위한 기부는 더욱더 빛을 발한다.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의 희망나눔 모금에 광주전남 시민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社說

총선 인재 영입 경쟁, 참신성·전문성이 관건

내년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 확장이 중요한데 여야 모두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황이야 참신한 인재 영입에 '비밀병기'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 추천제를 통해 인재 영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영입 1순위로 정한데는 유권자와 괴리된 인물로는 영입 효과가 없고 당 내외 추천 방식으로 할 경우 자칫 친운(친 윤석열)이나 친명(친 이재명) 인물 영입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입 대상도 경제나 과학 분야 등 전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달 초에 1차 영입 인재 9~15명을 발표할 예정인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 미래에 대한 책임, 질서있는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를 삼아 분야별 인재 영입하기로 했다. 참신한 전문가를 찾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여기에 맞춰 기존처럼 보수 성향 인물보다 젊은 전문직 인물 찾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선 무소속 자치단체장을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786명을 추천받아 1차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호남이 텃밭인 민주당은 지역에서 인재 고를때 보다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원 하는 인재들이 많지만 '풍요속에 빈곤'이라는 말처럼 다양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여야가 참신성과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인재 영입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인지, 인물의 사고가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내놓은 인물이라야 비밀병기가 될 수 있다.

아동 안전 위협하는 어린이공원 관리 절실

아동이 가장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어린이공원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동구 9곳, 서구 55곳, 남구 30곳, 북구 90곳, 광산구 88곳 등 총 272개에 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다. 하지만 일부 공원의 경우 놀이기구 등 시설이 크게 파손됐음에도 방치돼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구 치평동 원마뜰어린이공원은 보수·시설 교체가 시급했다. 바닥재(탄성 포장재)가 갈라진데다 조합놀이대(여러 놀이기구 조합된 놀이시설)에서는 심각한 목재 부식과 파손이 확인됐다. 조합놀이대 경사면에 설치된 나무 발판은 고정 못이 빠져 덜컹거렸고, 미끄럼틀은 고정 안 돼 2cm 가량 벌어진 틈새를 급류건으로 막아 놓았다. 놀이기구가 파손됐는데도 공원 시설에는 지난 7월 14일자로 발급된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이 붙어 있었다. 북구 평교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는 가동을 위해 보수와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놀이시설 보수와 놀이기구 교체에 수 천 만 원이 드는데다 이미 예산을 다 써버려 손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어른의 책임이자 지자체의 책무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른들과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폭력 사고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희생된 크고 작은 사고는 당연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無等鼓

"나에게 문화유적이야 박물관이자 백화점이었었는데 어른들의 놀이터야 사랑방이 세월의 뭍을 악을 먹고 인제 지쳐 주인마저 보이지 않는다."

김규환 작가는 2004년 펴낸 '잃어버린 고향 풍경'에서 구멍가게를 추억한다. 곁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정작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는 되는 소중한 공간들이 있다. 구멍가게가 그러하다. 구멍가게의 사전적 의미는 '조그맣게 물건을 차려놓고 파는 집'이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동네에 있었던 구멍가게

는 어른은 물론 아이들

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골고루 비치하고 있었

다. 학교 앞에 자리한 구멍가게는 문방구까지 겸하기도 했다.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마을공동체 중심에 있었던 구멍가게는 단순히 생필품을 파는 집합상을 넘어선 따뜻한 공간이었다.

부모님이 구멍가게를 운영했던 정근표 작가는 자전적 스토리를 담은 '구멍가게'에서 "구멍가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행복을 파는 곳"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함께 했던 구멍가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은 결국 자본의 논리와

소비자의 취향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제 구멍가게를 대신해 '도시의 구멍가게'적인 편의점이 24시간 불을 밝힌다.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 고품질을 동시에 선호하는 현대인은 '오래된 것'의 소중한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멍가게가 품었던 온기와 마을사람들의 유대감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라져 가는 '오래된 공간' 속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무형의 자산들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구멍가게의 소멸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nd the address: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